

# 전후 한국현대건축에 미친 미국과 일본건축의 영향 -미국에서 연수한 김정수와 일본에서 유학한 김수근을 중심으로-

안창모<sup>1\*</sup>

<sup>1</sup>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 Influence of American and Japanese Architecture on Building the Post-war Korean Contemporary Architecture

Changmo Ahn<sup>1\*</sup>

<sup>1</sup>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Kyonggi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6.25전쟁이후 한국현대건축 형성에 미국과 일본건축이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다. 2차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광복을 맞이한 후 미군정과 6.25전쟁을 거친 한국 건축계는 미국의 원조를 통해 미국식 건축교육시스템과 건축생산시스템의 영향권에 빠르게 편입되지만, 동시에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인적·제도적 관성에 기초한 일본건축의 지속적인 영향 속에서 재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일본에서 수학한 두 건축가(김정수와 김수근)의 작품을 분석하여 미국과 일본의 건축이 전후 한국의 현대건축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는데 있다. 전재 복구가 마무리된 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낙후된 한국의 건축생산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김정수는 개인적 차원에서 새로운 재료와 구법 그리고 국제주의건축의 구현을 통해 실현시켰다면, 김수근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를 통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두 건축가가 취한 해법의 차이는 국비와 개인부담이라는 유학자금, 미국 연수와 일본유학이라는 교육배경과 유학동기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혔다.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to discover the influence of American and Japanese Architecture on Building the post-war Korean Contemporary Architecture by looking through the architectural works of KIM Jongsoo and KIM Swoo-Geun. To overcome the deteriorated Korean architectural production system, these two architects chose different solutions; KIM Jongsoo developed new materials and introduced industrialized production system based on his own research, and KIM Swoo-Geun tried to develop engineering capability via Korea Engineering Consultant Corp. supported by Korean government which led Korean economic development plan. The difference of their solutions was due to their different background; fund of studying abroad, architectural education system in USA & Japan respectively and preferred solutions of personal or national dimension.

**Key Words** : Post-war Korean Contemporary Architecture; American Architecture; Japanese Architecture; KIM Jongsoo; KIM Swoo-Geun

###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6.25전쟁 이후 전재복구기와 경제개발 초기의 미국 원조가 한국현대건축에 미친 영향과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제도적·인적 관성에 기초한 일본건축이 한국현대건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다.

오늘날의 한국건축계는 WTO로 상징되는 국제화 속에서 미국의 건축교육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빠르게 미국중심의 교육체계에 편입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건축교육의 미국화는 해방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 이 땅에서 실시된 건축교육은 일제강점기는 물론 대한제국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오늘날의 건축교육시스템의 형성에는 해

이 논문은 2007년 경기대학교 연구년 지원을 받아 수행됨.

\*교신저자 : 안창모(mosc@hanafos.com)

접수일 11년 11월 24일

수정일 11년 12월 05일

게재확정일 11년 12월 13일

방과 전후 미국 원조시스템의 영향이 있었다.

미군정기에 도입된 4년제 미국식 건축교육제도와 전 재복구를 위한 미국의 물적·인적지원은 한국현대건축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건축인의 미국연수는 한국에서 미국식 건축교육이 빠르게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미국건축은 한국건축의 지향점이 되었다.

또한 해방이후 20년 동안 일본과는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지만,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건축인과 건축생산체제의 관성을 통해 일본건축 역시 비공식적으로 한국건축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외견상 빠르게 미국식 제도로 옮겨갔지만 한국건축계의 저변에는 일제강점기의 건축생산체제가 유지되는 이중구조가 형성되었다. 해방 이후 국교가 없던 상황에서 지속되었던 인적 네트워크와 일본유학은 일본건축의 한국 내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중요 통로였다.

본 연구는 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며, 미국과 일본에서 수학한 김정수와 김수근의 작품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건축이 1960년대 한국현대건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해방과 6.25전쟁 직후 한국건축계

1945년 8월15일 일본의 2차세계대전 패배로 한국이 일본지배에서는 벗어났으나 곧이어 미군정이 시작되었다. 미국에 의한 군사통치를 거친 1948년 독립정부를 수립하였으나, 일본에 의해 구축된 건축 관련 제도의 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가장 큰 변화는 3년제 경성고등공업학교(이하 ‘경성고공’) 건축학과가 4년제 대학의 건축학과로 전환된 것이었다. 일인 중심이던 조선건축회는 조선건축기술단으로 재편되었고, 조선총독부 건축조직은 군정청 건축서로 바뀌었다. 이와같은 제도와 인적 재편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건축체제의 관성은 유지되었다 [1].

그러나 6.25전쟁은 달랐다. 전쟁을 통해 좌우이념대결이 정리되었으며, 전재복구기 원조경제체제 하에서 한국건축계는 확대 강화된 반공이데올로기 속에서 국제주의 건축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었다. 한편 세계건축에 눈을 뜬 한국건축계에서 기술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지만, 건축생산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 오기에는 경제인프라가 매우 열악하였다. 국제적 디자인의 흐름을 좇았던 구성모병원이 공업기술미학의 결정체인 알루미늄커튼월 디자인을 알루미늄 슈트를 손으로 접어서 만든 것(craftsmanship)이 대표적인 예다. 전쟁은 식민잔재를 물리적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전재복

구라는 과제 앞에 사회에 내재된 식민잔재 청산은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건축 역시 같은 상황에 처했다. 전후 한국건축계의 주된 변화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인적재편과 해방 전후 교육세대의 사회진출이다. 이는 전쟁을 거치며 진보적 건축인이 월북하고, 전쟁으로 인적 손실이 있었으며, 전후복구 과정에서 도시건축 재건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할 건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3. 김정수의 미국연수와 건축작업

### 3.1 김정수의 미국연수

일제강점기 첫 미국유학생이었던 박인준 이후 건축인의 유학이 본격화된 것은 미네소타프로젝트이후다. 미국은 FOA(Foreign Operations Administration, 미국해외운영본부)/ ICA(미국국제협력본부, Int'l Cooperation Administration)를 통해 1961년 까지 무상으로 교육분야에 총 2,000만달러를 지원하였다. ‘미네소타프로젝트’와 ‘피바디프로젝트’가 대표적인 교육원조였다. 사범계 교육인력 양성이 주 목적이었던 피바디프로젝트와 달리 미네소타프로젝트는 한국 대학이 산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대, 농대, 의대 등 이공계를 집중 지원했으며, 서울대학교와 미네소타대학교 사이의 협약(1954년 9월28일)에 의해 진행되었다[2]. 미네소타프로젝트의 기본사업은 1. 교환교수 프로그램, 2. 장비구입, 3. 건물 및 시설복구였다. 핵심은 교환교수 프로그램이었으며, 이 프로그램에 의해 건축인들의 미국연수가 이루어졌다. 김정수를 비롯한 김희춘과 윤정섭의 연수가 이때 이루어졌다. 김정수의 연수는 1956년 8월부터 1957년 8월 까지였다.

### 3.2 김정수의 건축교육과 실무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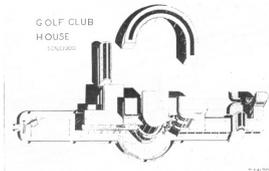
김정수의 건축교육은 2차 이루어졌다. 김정수는 일제강점기에 경성고공(1937.4~1940.3)에서 수학하였으며, 졸업 후 조선총독부 관방회계과 영선계에서 근무하다 해방을 맞이했다. 김정수는 경성고공에서 서양식 근대건축 교육을 받았지만, 후발산업국이던 일본의 국책에 따른 기술 중심의 건축교육을 받았다. 1920년대이후 모더니즘에 기초한 건축교육이 시행되었으나, 『조선과건축(朝鮮と建築)』 1941년 5월호에 실린 김정수의 졸업작품 ‘시청사’ 계획안에는 고전주의건축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비록 역사주의 건축양식의 장식은 없지만, 정면성을 강조한 중앙부와 좌우대칭의 매스구성(그림 1) 그리고 좌우 2개 중정을 포함한 대칭적 공간구성(그림 2)은 고전주의에 충실한 설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김정수 졸업작품, 시청사 투시도  
**[Fig. 1]** J.S. KIM's Graduate Work, City Hall



**[그림 2]** 김정수 졸업작품, 평면도  
**[Fig. 2]** J.S. Kim's Graduate Work, Plan



**[그림 3]** 사이토 졸업작품, 골프클럽하우스, 1940  
**[Fig. 3]** Saito's Graduate Work, Golf Club House

그림 3과 같은 모더니즘 작품이 다수이던 시절에 김정수의 졸업작품은 그가 모더니즘 보다는 고전주의 건축에 심취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1937년에 경성고공을 졸업한 김희춘은 『고희기념논문집』에서 경성고공의 당시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당시 경성

고공 건축과의 교육방침은 기술면에 치중했습니다. 1934년 입학 당시는 Le Corbusier 등 거장들이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중략) 저도 그 당시 Le Corbusier의 영향을 조금씩 받았지요.“ 이렇게 김정수 선배 세대의 증언에서 확인되듯 당시는 모더니즘이 주된 흐름을 형성하던 시기였음을 감안한다면, 김정수의 고전주의 취향은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김정수의 이러한 작품 경향은 미네소타대학 연수 이후에 변했다.

1940년 3월 총독부에 취직했던 김정수는 해방 후에는 미군정 건축서에서 건축업무를 담당했고, 1949년 삼정토건을 설립하여 건설업에 종사했다. 1951년 10월 UNKRA 주택국에 근무하였으며, 1953년에는 이친승과 함께 종합건축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사무소 이름을 ‘종합’으로 한 것은 전문가가 부재한 한국현실에서, 건축, 토목, 구조, 시공 등을 망라하는 설계사무실을 지향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적 현실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셈이다.

종합건축사무소 설립 후 1954년 남대문교회 현상설계에서 1등 당선, 1956년 공군본부와 이화여대 강당현상설계에서 각각 1등 당선되었다. 그러나 건축가로서 김정수의 역량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은 1957년 연수를 다녀온 이후다. 1960년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의 계기가 된 구정신여고 과학관은 연수이후 김정수의 건축이 180도 변했음을 보여준다[7].

미네소타 연수시절의 일기에는 김정수가 건축현장이거나 건축재료 공장방문 등을 통해 귀국 후 신재료와 설계 기법 등을 연구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충실했음이 잘 나타나 있다. 미네소타대학 부속병원의 방문, Anderson 알루미늄 창호공장과 레이놀드 알루미늄회사, Cast Stone공장, Fomica가구공장 시찰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7], 공장과 현장방문 경험은 후에 구성모병원의 알루미늄 커튼월 디자인, 연석개발 등으로 이어졌다. 이는 김정수가 연수 전에 이미 관청과 시공회사 및 설계사무소 등 15년에 걸친 다양한 경험의 건축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귀국 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정수와 함께 생활했던 윤정섭에 따르면, 김정수는 건축설계 이외의 과목에는 관심이 없었고, 수업 대신 건축재료 공장을 부지런히 돌아다녔으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신재료에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한다[9].

한편, 설계교육에 대해 ‘강의가 예정보다 힘들지 않은 듯하다. 내용이 빈약하여 재학생에게나 적당하리라 생각되며, Design Technique 이외는 공부가 될 듯 하지 않다.(1956.10.1)’는 일기와 함께 ‘설계수업이 있었는데, 내 작품이 가장 나왔다. 미국인교수들이 놀래고, 학생들이 눈을 휘돌르고 속덕거려서 무슨 영문인지 몰랐으나, 내 것을 가장 낫다고 하면은 상을(\$200) 나에게 뺏기는 모양이었다. 그들이 계획적으로 내 것을 점수를 적게 주어 결국 학생작품이 내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나는 관심도 없는 상, 아하 가소롭다.(1956.10.22)’[7]고 쓰기도 했다. 김정수에게 미국연수는 교육받는 기회라기보다 선진건축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였음을 알 수 있다.

### 3.3 김정수의 건축작업

#### 3.3.1 구 명동성모병원과 커튼월 디자인

연수 후 첫 프로젝트는 국제극장이었다(그림 4). 국제극장은 스타디움 형태의 1,800석 규모 극장으로, 전면은 철제 커튼월로 구성되었고 볼트형 지붕으로 덮였다. 이는 창고형 객석에 전면 로비만 부분적으로 모던하게 디자인 되던 기존 극장과는 달랐다. 특히 커튼월 전면은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경직된 가로경관을 일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일은행 광고지점, 구정신여고 과학관, 구원자력병원 등에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던 커튼월이 구성모병원에서 전면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알루미늄창호를 생산할 수 없던 한국에서 알루미늄 커튼월을 구현하기 위해, 알루미늄 판을 접어 창호틀을 만들고 알루미늄패널로 면을 채워 국내 처음으로 건물 전체에 커튼월을 구현할

수 있었다.[그림 7]. 알루미늄창호공장 방문에서 얻은 성과였다. 김정수는 커튼월이 비계없이 고층건물 외장을 시공할 수 있는 획기적 디자인이라고 자부한 바 있다. 구성모병원의 커튼월은 공업기술미학의 정수인 알루미늄 커튼월을 수작업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낙후된 건축생산체제 하에서 최신 디자인을 추구하고자 했던 건축가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그림 4] 국제극장  
[Fig. 4] Int'l Theater



[그림 5] 구 원자력병원  
[Fig. 5] Old Cancer Center Hospital



[그림 6] 구 정신여고  
[Fig. 6] Old Jeongshin Girl's High School



[그림 7] 구 명동성모병원  
[Fig. 7] Old St. Mary Hospital



[그림 8] 경향신문, 1958.8.12.  
[Fig. 8] The Kyunhyang Shinmun, 12 Aug. 1958



[그림 9] 구한일은행 광고지점  
[Fig. 9] Old Hanil Bank

### 3.3.2 감리교신학대학과 연석

커튼월과 함께 김정수 건축에서 두드러지는 재료가 연석이다. 연석은 시멘트로 만든 인조석으로, 애슬라쌓기 패턴을 가진 몰드에 안료를 섞은 시멘트를 부어 만들었다[그림 11]. 연석을 사용해 다양한 색채의 외관을 구성할 수 있었는데, 이는 붉은 벽돌과 타일이 주었던 건축의

관에 참신한 변화를 가져왔다. 감리교 신학대학본관과 웰치기념교회를 비롯하여 한일은행 광고지점, 공보처 영화제작소에 이어 구정신여고 과학관에도 연석이 사용되었다[7]. 특히 구정신여고 과학관은 외장재의 참신함 뿐 아니라 과학실과 일반교실의 상이한 기능을 각기 다른 장방형 매스에 각각 다른 재료로 마감하고 원통형 부속건물과 함께 입체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한국 현대건축 디자인의 새로운 전기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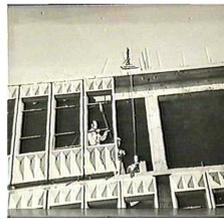
[그림 10] 감신대 본관  
[Fig. 10] Methodist Theological Univ.



[그림 11] 연석패턴  
[Fig. 11] Pattern of Yunseok

### 3.3.3 풍문여고 교사와 공업화건축

김정수 작업에서 주목할 것은 그가 건축디자인과 재료뿐 아니라 공법에도 깊이 천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경제개발기에 급증하는 건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업화 건축기술이 필요했는데, 김정수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프리캐스트콘크리트 패널의 개발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림 12] P.C.패널시공  
[Fig. 12] Construction of P.C. Panel



[그림 13] 동교동 빌딩  
[Fig. 13] Donggyodong Building



[그림 14] 풍문여고 교사  
[Fig. 14] Poongmun Girl's High School building



[그림 15] 풍문여고 교사의 외벽상세  
[Fig. 15] Details of Ext. Wall



[그림 16] 연세대학생회관  
[Fig. 16] Students' Hall,  
Yeonsei University



[그림 17] 입면상세  
[Fig. 17] Details of  
elevation

그는 P.C.패널을 개발하여 동교동빌딩에 적용하여[5] 성공한 이후 풍문여고 교사에 확대 적용하였고[7], 공법에 대한 특허도 출원하였다. 특히,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그림 16]에서는 반복되는 단순한 콘크리트 패널의 단조로움을 조형적 리듬감으로 해결하였는데, 이는 건축의 구조미학을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미노루 야마사키의 디자인을 연상시킨다. 동교동빌딩[그림 13]을 통해 개척한 P.C.외벽패널 공법은 1970년대 이후 사무소건축의 주요한 외장공법으로 자리잡았다.

### 3.4 소결

김정수는 작품성보다는 최초 또는 개발이라는 수식으로 인식되는 건축가다. 최초의 알루미늄 커튼월, 최초의 프리캐스트콘크리트 패널공법과 연석개발 등, 김정수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평가는 연수 후 10년 동안의 작업에 기초하고 있다. 이 시기는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전채복구를 마무리하고 경제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폭증하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보다는 작가적 의지 구현에 노력하였던 반면에, 김정수는 사회가 요구하는 건축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과 함께 실천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해법을 미국연수를 통해 새로운 건축재료의 수용, 공법 개발 그리고 국제주의 건축의 수용에서 찾았다.

## 4. 김수근의 일본유학과 건축작업

김수근의 일본유학은 여러 면에서 김정수의 미국연수와 비교된다. 김정수가 국내교육과 실무경험을 갖고 있었던 데 반해 김수근은 유학 전에 서울대 건축학과에 입학하기는 했지만 전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내교육 배경이 없었다. 또 김정수의 미국행이 전후 복구사업을 위한 전문가 양성차원에서 국가의 지원 하에 이루어졌다면 김수근의 일본유학은 건축가를 향한 개인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차이가 미국연수와 일본수학의 지향점을 다르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 4.1 김수근의 일본유학

김수근이 해방직후 미군으로부터 ‘건축가’의 직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건축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한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건축가는 ‘예술가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다. 건축가는 건축가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소설을 읽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려야 하고, 여행을 많이 하여 안목을 넓혀야 한다.’며, ‘내일이면 늙다. 특히 건축가는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므로 오늘이 중요하다’[10]고 역설했다고 한다. 미군과의 만남은 그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는 경기중학교에서 문예반과 합창반 활동, 그림 그리기와 사진 찍기 등을 통해 건축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고, 1950년 서울대 건축학과에 입학했지만, 전쟁으로 공부는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건축을 향한 김수근의 의지는 강했다. 1951년 말 부산에서 만난 김종업의 도움으로 전쟁중인 나라를 뒤로 하고, 일본으로 밀항해 1954년 동경예술대학(이하 동경예대)에 입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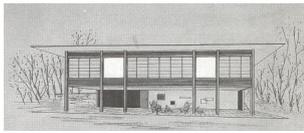
### 4.2 김수근의 건축교육

김수근은 동경예대와 동경대에서 각기 다른 건축교육을 받았다. 그의 건축작업을 단계 겐조(丹下健三)와 요시무라 준조(吉村順三)의 건축 안에서 파악하려는 시도[11]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정인하는 건축공간의 구상은 요시무라의 영향을 받았지만, 건축과 공간에 대한 철학은 단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11] 동경예대에서 요시무라의 역할에 주목했다. 요시무라는 동경예대 졸업 후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F. Wright) 밑에서 동경 제국호텔을 설계했으며 안토닌 레이몬드(A. Raymond)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동경예대는 일본건축교육에서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다. 동경대 건축교육이 국가정책에 부응한 기술중심교육[8]이었지만, 동경예대에서는 프랑스의 에플 데 보자르를 모델로 한 건축교육이 이루어졌다. 김수근 입학 당시 교수진으로 오카다 소고로(岡田捷五郎), 요시다 이소야(吉田五十八), 요시무라 준조(吉村順三), 야마모토 기쿠치(山本學治)가 있었다. 이 중에서 김수근에게는 요시무라의 영향이 컸다. 요시무라의 건축은 일본민가가 갖고 있는 소박함, 정직함, 합리성에 가치를 두었는데, 이는 전후 일본건축의 지향점을 모색하며 고도성장기 도시와 건축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던 단계의 작업과 구별된다.

김수근이 동경예대에서 받은 건축교육에 대해 동경대에서 수학하고 단계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박춘명은 구조, 설비, 전기 등 엔지니어링이 교육의 반을 차지하는 동경

대와 달리 동경예대에서는 엔지니어링 교육이 없었다고 한다[17]. 이는 두 학교가 지향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인데, 두 학교의 지향점 차이가 건축교과에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두 학교 출신 건축가들의 디자인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동경대가 동경예대와 전혀 다른 성격의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수근이 동경예대 졸업 후 동경대에 진학했다는 점이다. 이는 김수근이 동경예대와는 다른 무엇을 동경대에서 찾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전혀 다른 성격의 건축교육 경험은 김수근이 당면했던 국가적 대규모 과제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작가로서 조형성이 강조되는 건축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림 18] 동경예대 주택과제  
[Fig. 18] KIM's drawing of House Work at Tokyo Univ. of the Arts

김수근의 대학시절 작품으로 요트클럽, 3건의 단독주택, 별장, 은행, 오피스, 강당, 호텔 그리고 커뮤니티센터가 있다[13]. 이들 작품은 입면구성에서 일본건축 취향이 두드러지지만, 전반적으로

근대건축의 원칙에 충실하다. 당시 김수근은 꼬르뷔지에에 심취했다고 한다. 1958년 김수근은 동경대에 입학해 다카야마 연구실에 수학했다. 당시 다카야마연구실에서는 동경올림픽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연구실에서의 역할은 알려진 바 없지만, 김수근의 석사논문이 '경기장 시설'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림픽 관련 연구실 프로젝트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다고 짐작된다. 이는 김수근이 1959년 국회의사당 현상설계 당선후



[그림 19] 동아일보 1960.12.2.  
[Fig. 19] The DongA Ilbo, 2 Dec. 1960

서울에서 행한 강연주제가 뜻밖에도 국회의사당이 아닌 운동시설이었던 배경이다. 강연에서 김수근은 '경기장의 연혁과 분류 및 의의 등을 살피고, 도시와의 관계와 종합경기장 문제 그리고 각종 경기장 계획 등을 다루었다'고 한다[그림 19]. 동경올림픽의 경험은 훗날 서울올림픽 주경기장 설계로 이어졌다.

### 4.3 김수근의 건축작업

#### 4.3.1 남산 국회의사당

1959년5월25일 공고된 대한민국국회의사당 현상설계에 김수근 팀(박춘명, 김수근, 강병기, 정형, 정종태 합작)

이 당선되었다[그림 20]. 당선안의 디자인은 박춘명과 강병기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수근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당선안에 대해 '1등 당선안은 중앙지인 이단지(二段地, 현 백범광장)의 국회의사당과 삼단지(三段地, 현 중앙공원)의 지상 25층 규모의 국회의사무동이 균형을 잘 잡았고, 외관형태도 동양적 표현으로 하려고 애쓴 점이 좋았으며, 본 건물과 의원사무실간의 연락도 입체적으로 고려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동양적'이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당선안은 단계의 '가가와현(香川縣)청사[그림 21]'와 매스구성은 물론 목구조를 콘크리트로 변안한 입면구성이 상당히 닮았다. 두 건물의 유사성은 왜색시비 논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었지만, 5.16군데타 이후 국회의사당 건설계획이 중단되면서 역사 속으로 묻혔다.



[그림 20] 국회의사당 당선안  
[Fig. 20] 1st Prize of National Assembly



[그림 21] 가가와현청사  
[Fig. 21] Kagawa Prefecture Office

가가와현청사에서 단계는 국제주의건축을 추종하는 동시에 일본의 정체성을 담아내고자 했고, 그 결과는 콘크리트에 의한 목구조 변안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사당에도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사용되었다. 국회의사당 심사평에서 '동양적 표현'이라고 언급된 이유이다. 당시 단계의 가가와현청사 해법은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었다. 당선안 설계를 담당했던 세 명중 두 명이 단계연구실 출신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14]이 있지만, 이는 설계를 김수근이 주도했다는 증언과 어긋난다. 국회의사당 이후 김수근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단계의 영향을 보면, 당선안에서 나타난 단계의 영향은 김수근이 주도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4.3.2 워커히호텔프로젝트

워커히호텔프로젝트는 국회의사당 건설이 5.16군부에 의해 무산된 이후 김수근에게 주어질 새로운 기회였다. 1961년 12월 시작된 워커히프로젝트는 본관(나상진, 김희춘), 한국관(엄덕문), 방갈로(이희태, 강명구), 힐탑 바(김수근, 그림 20), 더글라스 홀(김수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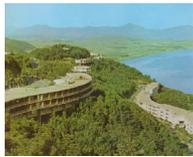


[그림 22] 힐탑바  
[Fig. 22] Hill Top B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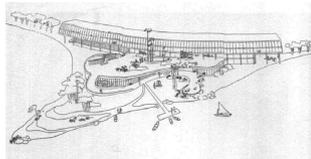


[그림 23] 카라카스 미술관  
[Fig. 23] Caracas Museum

외화벌이를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에서 김수근은 조형 감각을 콘크리트의 조소성을 통해 구현하였다. 이 중에서 ‘힐탑바(Hill Top Bar)’는 강한 인상을 주는 프로젝트다. 힐탑바가 언덕 위에서 강을 조망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역피라미드 형상 때문이다. 힐탑바에 대해 최순우가 ‘점지의 묘’가 유감없이 발휘된 건축이라는 평가했지만[15], 힐탑바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수근은 이 건물을 ‘요른 옷존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 비교하면서 기능주의와 합리주의로 균형을 잃어버렸던 건축사를 다시 찾았다’고 평가했지만, 힐탑바 디자인은 오스카 니마이어(O. Niemeyer)의 카라카스 미술관 계획안(Museum of Modern Art Caracas, 그림 21)을 답았다. 여기에 김수근은 6.25전쟁 때 전사한 위키장군을 기리는 'W'를 힐탑바의 역피라미드구조로 표현하는 기지도 발휘하였다.



[그림 24] 더글라스 홀, 김수근  
[Fig. 24] Douglas Hall. S.G. Kim



[그림 25] O.니마이어, 투어호텔 프로젝트  
[Fig. 25] Tour Hotel Project, O.Niemeyer

김수근의 또 하나의 위커힐호텔 내 건축으로 ‘더글라스홀’이 있다. 더글라스홀은 지형을 감아도는 듯한 형상을 갖고 있는데, 이 역시 브라질의 굴곡진 해안선에 모티브를 둔 니마이어의 Tour Hotel Project를 답았다. 김수근이 설계한 위커힐호텔 내 2개 건물이 모두 니마이어의 작품을 답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당시 기능주의에 입각한 경직된 조형에서 벗어나 시적 조형언어를 추구하던 김수근에게 꼬르뷔지에 이후 시대를 주도하는 니마이어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었다.

### 4.3.3 자유센터

5.16구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부의 외화벌이 경제프

로젝트가 위커힐호텔이었다면, 자유센터는 미국 지지를 얻기 위해 반공주의를 내세운 정치프로젝트였다[그림 26]. 반공주의를 천명한 박정희정부는 아시아반공연맹회의



[그림 26] 자유센터 조감도  
[Fig. 26] Bird's Eye View of Freedom Center

의를 위한 자유센터 설계를 김수근에게 맡겼다. 유엔의 6.25전쟁 참전국의 숫자에 한국을 합한 숫자(17)를 층수로 지어

진 숙박동과 복진통일을 형상화한 듯한 배 모양의 사무동은 프로젝트의 정치적 성격을 조형적으로 구현해 낸 결과로 보기에 손색이 없다.



[그림 27] 자유센터 전경  
[Fig. 27] Freedom Center



[그림 28] 열주  
[Fig. 28] Column

숙박동은 저층부의 홀과 고층부의 타워형 숙박부로 단순하게 구성되었지만[그림 27], 타워형 입방체에서 층별로 바닥면적을 달리하여 수직적 조형감을 살린 매스구성은 김수근의 조형감각과 함께 강남과 강북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위치를 점유한 입지의 강점을 살려내고 있다. 사무동의 경우 전체

매스의 구성은 단계의 골프클럽하우스[그림 29]를 답았지만,



[그림 29] 단계의 골프클럽하우스  
[Fig. 29] Golf Club House, Tange

내용적으로는 꼬르뷔지에의 찬디 가르시 대법원을 답았다. 기능과 관계없는 과장된 매스와 건물 전면을 구성하는 열주 및 캐노피[그림 28] 그리고 건물의 앞뒷면을 관통하는 중앙홀과 계단은 자유센터 사무동의 기념비성을 더해준다.

### 4.3.4 부여박물관

한국현대건축에서 ‘전통’과 관련된 건축이슈의 중심을 차지하는 건물이 부여박물관이다[그림 30]. 부여박물관 논란은 정문과 본관이 일본 신사와 닮았다는 동아일보 기사 비롯되었다[그림 31]. 당시 기사는 한일국교정상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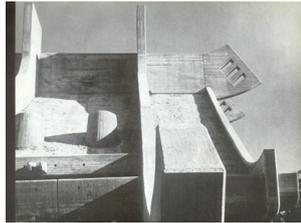
대한 비판적 사회여론과 맞물려 건축계를 넘어 사회 이슈로 확대되었다.



[그림 30] 부여박물관 전경  
[Fig. 30] Buyeo Museum



[그림 31] 동아일보  
1967.8.19  
[Fig. 31] The DongA  
Ilbo 19 August, 1967



[그림 32] 왜색시비 대상인 지붕의 상세  
[Fig. 32] Detail of Roof

논쟁은 정문이 신사의 도리이를 닮았다는 것과 박물관 본관의 지붕이 신사를 닮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그림 32]. 그러나 김수근은 자신의 설계가 신사와 유사하나 ‘그것은 일본 고유의 것이 아니라 백제에서 건너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현대건축을 전공하는 자신의 창작 품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박물관이 신사와 닮았다는 사실로 인해 김수근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왜색시비 논쟁은 건축심사위원회에서 일본색이 짙은 일부에 대한 수정을 권장하였고, 김수근이 이를 수용하면서 일단락되었다. 부여박물관의 왜색시비 논쟁은 단계가 노출콘크리트 구법에 일본의 정체성을 담기 위해 목구조건축의 콘크리트변안을 따른 결과였다.

#### 4.3.5 세운상가 프로젝트와 도시개발

김수근작품으로 알려진 세운상가의 공식 설계자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하 기술개발공사)다. 기술개발공사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김수근은 여의도와 한강연안 개발 프로젝트, 남대문시장 도시계획, 종로3가 재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한 각종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가 세운상가 프로젝트다[그림 33].



[그림 33] 세운상가 전경  
[Fig. 33] Seun Complex



[그림 34] 세운상가  
[Fig. 34] Seun Complex

세운상가는 기술개발공사의 ‘종로3가재개발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세운상가는 2차 세계대전에서 공습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소개공시대가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슬럼으로 변하자,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김수근은 동서방향으로 발달된 도시구조에 인공대지를 기반으로 종묘에서 남산에 이르는 남북방향의 도시축을 새롭게 설정하고, 인공대지 위에 주거와 상업시설을 갖춘 자족적 도시를 구축하여, 도시구조 개편을 선도하고자했다[그림 33&35][4].

세운상가에 도입되었던 계획개념은 포르투갈의 ‘3백만을 위한 도시계획’ 이후, 유럽의 전재복구계획 그리고 동경도시계획과 스코피아프로젝트에 이르는 20세기 도시계획의 새 패러다임의 연속선상에 위치하고 있었다[3]. 일본 유학시절 김수근은 도시계획과 포르투갈에 대해 배웠을 뿐 아니라 오자와시(小澤市)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전후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 동경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되었던 ‘동경계획1960’도 알고 있었다. 특히, 1960년 이후 일본에 등장한 메타볼리즘 건축가들의 도시계획 프로젝트는 김수근팀의 세운상가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개발비용을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면서 계획에 많은 변경이 생겨 인공데크에 의한 보차분리와 쇼핑몰 구성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1968년 1월21일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사건으로 강남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세운상가를 통해 구도심을 현대도시로 변모시키고자 했던 서울시의 계획은 무위로 돌아갔다.



[그림 36] 여의도 및 한강연안 개발계획  
[Fig. 36] Yeouido & Coastal Development Plan of HanRiver



[그림 37] 여의도 마스터플랜  
[Fig. 37] Yeouido Master Plan

정부는 강남개발을 위한 징검다리로 ‘여의도 및 한강

연안 개발계획'[16]을 수립하였다[그림 36 & 37]. 계획의 핵심은 냉전체제로 기능을 상실한 한강의 호수화에 기초한 치수계획과 한강변 주거지 및 여의도개발이었다. 특히 여의도개발은 선형의 세운상가프로젝트 개념을 면적으로



[그림 38] 조선일보 1968.3.28

[Fig. 38] The Chosunilbo, 28 Mar 1968

확대한 입체도시계획이었다[그림 37]. 국회와 서울시청을 포함하는 여의도개발은 일제강점 이래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단핵도시의 틀을 벗어나 한강 이남을 포함하는 다핵도시로 성장하는 첫 시작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의도개발계획은 입체적 도시계획 개념과 공간배분 그리고 조형언어 측면에서 단계의 '동경계획1960'의 영향을 받았다.

#### 4.4 소결

김수근이 건축가의 길을 걷게 된 배경에는 해방과 전쟁이라는 한국현대사의 비극과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있다. 김수근의 건축가를 향한 의지는 동경예대 진학으로 이어졌고 조형예술로서 건축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동경대 대학원 진학은 김수근의 지향점이 조형예술로서 건축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동경대에서 올림픽 관련 체육시설과 도시계획의 새로운 흐름에 접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1960년대 경제성장과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었다. 동경예대 건축교육의 성과가 힐탑바와 자유센터 그리고 부여박물관의 조형언어로 귀결되었다면, 동경대 건축교육의 영향은 세운상가와 여의도개발프로젝트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김정수와 김수근은 1960년대의 낙후된 건축생산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해법은 전혀 달랐다. 김정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건축재료의 생산과 공업화구법의 개발 그리고 국제건축양식의 도입을 택했지만, 김수근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국가지원을 끌어냄과 동시에 작가로서 작품세계를 추구했다.

이러한 두 건축가의 다른 해법은 각기 다른 미국과 일본에서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김정수의 미국연수는 전

후재건사업의 일환으로 한미간에 체결된 미네소타프로젝트에 의해 이루어졌고, 김정수는 연수 후 설계와 시공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디자인에 적극적이었으며, 신재료와 공법을 직접 개발하였다. 특히 구 명동성모병원에서 공업기술미학의 정수인 커튼월을 수작업으로 구현한 것은 최신의 건축디자인을 향한 작가로서의 의지와 낙후된 건축생산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김수근은 낙후된 건축생산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대안을 모색했고,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다. 기술개발공사를 통해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대규모 국토개발과 도시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자신은 작가로서의 작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김수근의 접근이 김정수와 달랐던 것은 김수근의 유학이 개인적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일본에서 동경예대와 동경대의 상반된 교육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작가로서 김수근의 작업세계는 동경예대 건축교육에서 형성되었으며, 국가적 방향성을 가진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는 동경대 대학원 건축교육과 동시대 일본의 올림픽준비와 도시개발프로젝트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1960년대 한국현대건축을 견인했던 두 건축가가 한국의 건축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취한 각기 다른 해법은 국가후원의 건축연수와 개인적 건축유학의 차이, 미국과 일본이라는 건축교육의 배경과 건축경험 그리고 문제해결에 있어 개인적 실천과 국가를 통한 극복이라는 상반된 실천방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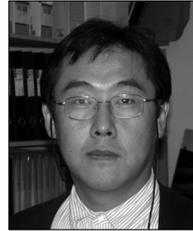
### References

- [1] AHN Changmo,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Character in Korean Architecture from 1945 to 1961",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3
- [2] LEE Wangjun, "The Influence of Minnesota Project on the Korean Medical Education", Doctori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6
- [3] LEE Dooho & AHN Changmo, "Architectural Reinterpretation on Seun Complex", Proceeding of Korean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History, pp.355-366, 2011 Autumn Conference.
- [4] KANG Nanhyung, "A Study on Urban Section of Seoul Megastructure, Sewoon Mixed Use Development Block",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2011
- [5] JANG Won-Seok, "Technological Attempt and Architectural Features of Architect KIM Jongsoo in

- Donggyo-dong Building",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22, n.11, Nov. 2006
- [6] JANG Won-Seok, "The Technology and Stylistic Expression of the KIM Jongsoo, A Korean Architect's Work", Doctorial Thesis, Yonsei Graduate School, 2006
- [7] KIM Sung-Woo & AHN Changmo, KIM Jongsoo Works, space, 2009
- [8] AHN, Changmo, "A Study on Architectu PARK Dongzin", Doctori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 [9] Chopyung Memorial Foundation, Architect KIM Jongsoo, Koryeowon, 1995
- [10] KIM, Swoo-Geun, A good road to narrow the more good, bad road wider, Space Publishers, 2006
- [11] AHN Changmo, Koran Comtemporary Architecture since 1945, Jaewon, 1996
- [12] AHN Changmo, "Architectural Identity in Postcolonial Korean Society: Controversy on Architectural Style of the Buyeo National Museum", Modern Architecture from Asian, acetate, 2006
- [13] JUGN In-Ha, Architect KIM Swoon-Geun, Space, pp. 39-40, 1996
- [14] JUGN In-Ha, Architect KIM Swoon-Geun, Space, pp. 45-46, 1996
- [15] JUGN In-Ha, Architect KIM Swoon-Geun, Space, pp. 61-62, 1996
- [16]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Yeouido & Coastal Development Plan of Han River, 1969
- [17] AHN Changmo, PARK Choonmyung, Series of Oral History, ARKO, pp.61-62, 2005

안 창 모(Changmo Ahn)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 1997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 1998년 3월 ~ 1999년 2월 :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객원연구원
- 1999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부교수
- 2008년 11월 ~ 2009년 8월 : 일본 동경대학교 객원연구원

<관심분야>

건축역사, 도시사, 건축설계